

5~6학년

구성 김수현
서울 정수초등학교 교사

회색 도시를 초록 도시로 바꾸는 산뜻한 상상력
마법처럼 '나무가 자라는 빌딩'으로 초대합니다!



나무가 자라는 빌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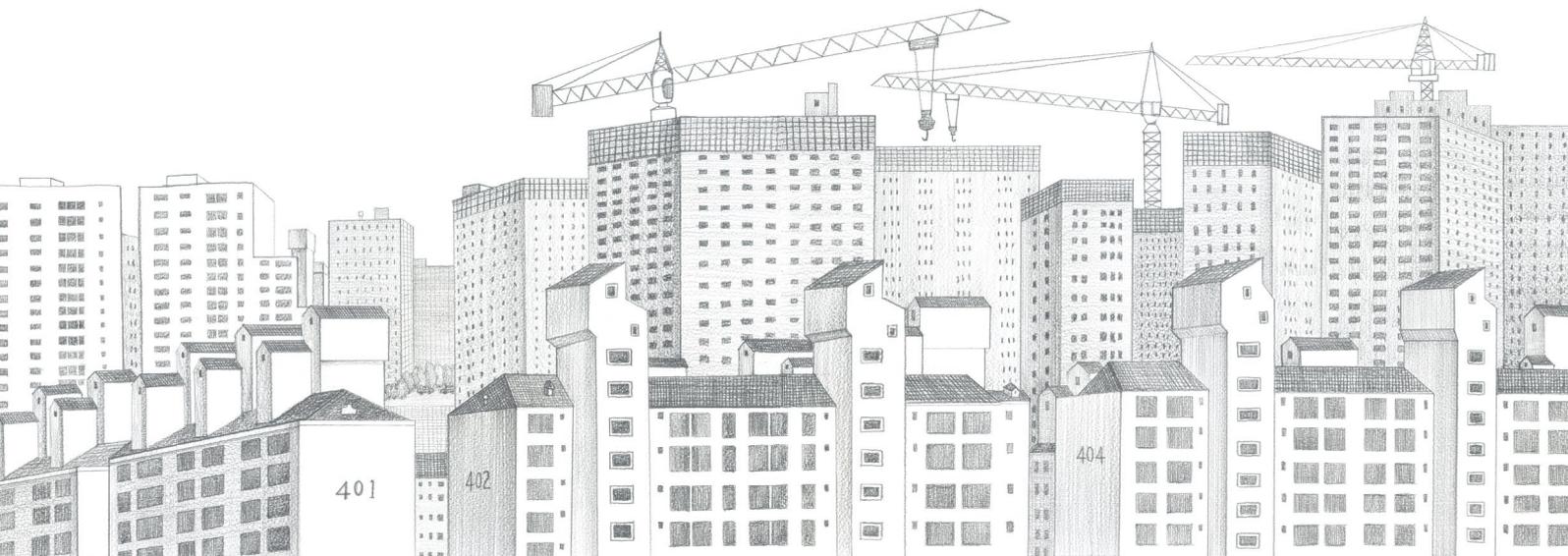
윤강미 그림책 | 창비 | 2019

현대어린이책미술관이 주관한 '1회 언-프린티드 아이디어 Un-printed Ideas' 전시 선정작. 아이가 작은 씨앗처럼 품은 상상을 따라가는 그림책이다. 회색 도시가 초록빛으로 바뀌는 모습이 화려한 색채로 표현되어 환상적으로 펼쳐진다.

어느 날, 도시의 아파트에 사는 한 아이가 '자기만의 집'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린다. 아이는 꽃이 마법처럼 자라는 놀이터, 맑은 공기를 내뿜는 식물 연구소, 추운 겨울에 동물이 지낼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온실 등을 지으며 자기만의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. 생태적 상상력으로 빛은 독특한 건축물과 초록 도시의 풍경이 산뜻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도록 이끈다.

활동지 1 내가 만드는 나무가 자라는 도시

도시 그림이 있어요. 나무와 꽃이 하나도 없어서 어두컴컴하기만 해요. 『나무가 자라는 빌딩』을 읽은 여러분이 이 어두컴컴한 도시에 꽃과 나무를 그려 주세요. 어두컴컴한 도시에서 밝고 환한 도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.



Q1. 다음 영상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적어 봅시다.



<https://youtu.be/1q9wFg2wVVs>

Blank yellow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answers to Q1.

Q2. 위 영상 속의 정책을 실천하면 무엇이 좋을까요?

Blank light orange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answers to Q2.

Q3. 위 영상과 책 『나무가 자라는 빌딩』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

Blank yellow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answers to Q3.